

# 우연성의 업보가 지배한다는 두려움 갖지 마라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 ◎ 부처님 앞에서 힘자랑 하는 손오공

손오공이 말한 대로 “육황상제는 누가 정해놓고 하라는 법 있나? 힘센 자가 최고다. 그러니 힘센 내가 육황상제 해야겠다!” 하는 방식, 거기서 앞부분은 부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육황상제 씨가 따로 있느냐는 식의 생각은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겠지요? 바로 꿇줄에 의해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를 벗어나는 데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태생에 의해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야말로 가장 불합리한 사회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 참 불합리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가 얼마나 오랜 동안 인류 역사를 지배해 왔던가요?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이런 잔재가 청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손오공의 말 가운데 앞 이야기는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뒷부분이라 했죠?  
“힘센 놈이 최고다!”

이 말을 받아들이면 이젠 거의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무조건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건 오히려 꿇줄이 지배하는 세상보다 더 험한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힘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나가는 길에 한번 생각해 보지요,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어떤 원칙에 의해 세상을 꾸리느냐에 대한 답도 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사람이 다른 존재들, 특히 동물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서양 철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내놓은 답은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는 답입니다. 사람에게 고유하게 있는 것은 ‘이성(理性)’이라는 것이죠. 이젠 사람의 지적인 부분을 가장 중시하는 답이라 할 수 있겠네요. 또 ‘정서적인 동물이다’ 라는 답도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답도 있지요.

중국 제자백가 가운데 하나인 묵자(墨子)는 ‘사람은 노동하는 동물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무가나 웃이나 하는 것들을 타고나는 데 의존하지만, 사람만은 노동을 통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사용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자는 노동의 산물을 낭비하거나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묵자가 유교의 예(禮)나 음악(音樂)을 비난하는 것은 그 때문이죠. 이에 반해 유학(儒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도덕적인 동물’로 규정합니다. 인간만이 남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나와 남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도덕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도덕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덕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 가르치면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그림 · 최주현

특징은 무엇인가?’를 물어본 적이 있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과 같은 답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발하고도 발칙한(?) 답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어나고요? ‘사람은 발정기가 따로 없는 동물이다!’ 라는 답이었어요. 하하~ 맞기는 맞는 이야기인가요? 흠, 나칠게님은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는 표정이군요. 나칠게님의 상태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 나칠게님 주변으로는 여성 접근 금지 표시를 붙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전혀 아니라고요? 여성을 존중할 지언전 절대 위험한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표정과 발언 내용이 너무 다른데 어느 것을 존중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하하!

그건 그렇고, 앞에 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인간이 인간다운 까닭 가운데 힘이라는 것은 없군요. ‘인간은 힘센 동물이다’ 하는 인간의 정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 ‘힘’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우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길은 없는 셈이겠지요? 그리고 손오공의 이야기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이야기인가도 들어나는 것 이겠지요.

이런 손오공의 억지 주장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이 어리석은 축생도 못 벗어난 원숭이 아저씨야! 육황상제는 천 칠백 오십 겁의 수행을 쌓으신 분이야. 네 따위 갖 도둑처럼 힘자랑하는 녀석이 옛불상 대가 아니란다.”

요컨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힘이 정말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오랜 수행으로 닦인 인품과 도력과 선행의 과보 같은 것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차분하게 타이르시는 부처님! 그런데 천동별 거승이 손오공이 들어먹을 리가 없다는 게 문제이겠

### 불교의 ‘업’은 ‘의도’가 가장 중요 무의식의 업은 약한 업이 될뿐 선업 쌓아 잘살자는 세태 ‘잘못’

조? 그래서 부처님이 슬쩍 손오공을 도발하여 내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부처님의 차분한 타이름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 하나를 살펴보고 가기로 할까요? 수행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지만, 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업(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업에 의해 세상의 신분질서가 정해진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업이라는 것의 의미와, 그것으로 세상의 신분질서를 합리화하는 것이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업을 중심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아서 말이지요. 불자들이 가장 입에 많이 올리는 말이 바로 ‘업’ 아니던가요? ‘해고, 전생의 업이 많아서……’ 라든가, ‘이게 무슨 업인지’, ‘다 업보야!’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하시잖아요? 그 만큼 업이라는 게 우리의 의식의 바탕에 깊게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 또는 업보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업은 행위란 뜻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업보란 행위의 결과 또는 그 결과로 오는 과보를 말합니다. 인과응보란 말은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이지요. 그리고 인과응보가 없다면 세상은 완전히 풍가루 집안이 되겠지요. 인과응보가 있다는 믿음이 아래 우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가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겠지요. 업이 결과를 낳는다면, 그 업이라

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과응보의 해석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까마귀가 활 날아가는 바람에 까마귀가 앉았던 매나무 가지가 출렁이고, 그래서 배가 푹 떨어졌습니다. 그 배가 마침 그 아래를 지나가던 뱀의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하고, 또 재수가 없어서 뱀이 치명상을 입었고, 그래서 뱀이 죽었습니다. 뱀은 죽어서 사냥꾼이 되었고, 까마귀는 죽어서 멧돼지가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다가 우연히 비탈길에 바위를 건드렸고, 그 바위가 굴러 우연히 산자락을 유유히 산보하던 멧돼지를 덮쳐 깔아뭉개고, 그 결과 또 우연히 멧돼지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이런 우연의 연쇄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모두 인과응보 이니라!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업의 사상일까요? 업보란 그런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업이나 업보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정말 우리는 움직이고 뛰지도 못합니다. 발걸음 하나 옮길 길이 없어요. 우리 발밑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런 생명을 밟아 죽이면 그것이 업보가 되어 또 나를 괴롭힐 테니까요. 그런 것은 불교의 업 사상이 아닙니다. 자이나교라는, 불교와 비슷한 시대에 시작된 인도의 종교에서는 이와 비슷한 업설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무의식으로 짓는 업까지 업보를 낳는다고 생각해서 철저한 무소유를 실천하려 합니다. 제가 신도들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상업을 직업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군요.

불교의 업설은 이와 다릅니다. 업을 업이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 불교 업설의 특징이죠. 어떤 행위를 하는데 목적의식이나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생명을 해했다 하더라도 생명을 해치려는 의도

가 없는 우연한 일이거나 피치 못할 일이라면 업으로 여겨지지 않거나, 업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아주 약한 업이 되는 게지요.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가 업보의 연쇄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우리 불자들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식의 업을 지을까 전전긍긍할 필요 없이 어찌 살고 싶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우연성으로 일어나는 업보가 지금의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구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업을 쌓아서 좋은 결과를 누리고 잘 살자는 것이 불교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되는 풍조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나칠게님, 모처럼 손을 번쩍 드시네요. 말씀해 보세요.

나칠게: 삼배선생, 괜한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런 잘못된 믿음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오직 부처님께 열심히 빌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지고 살고 있어요! 전번에도 주식 투자한 거 잘되라고 기도 불리고 열심히 빌었더니 정말 대박이 났거든요. 또 그 전에는 우리 아들을 대학 합격 기도도 영험이 있었어요. 전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룬다는 건강한 믿음 지니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허! 정말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네요. 제 걱정은 이런 것이었거든요. 불교의 목적은 좋은 업 쌓아서 이 세상에 좋은 복 누리고, 내생에는 좋은 세상 태어나자는 것이 아닌데, 지금의 불교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칠게님 말씀 들으니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칠게님,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면 정말 부처님 가엾어 어찌나요? 수많은 불자들의 수많은 기도 들어주시노라, 정말 잠시도 못 쉬실 것 같아요. 완전 노예 신분? 깨달아 부처되면 모든 중생의 기도에 일일이 봉사하는 노예 같은 거 되는 건가요? 애고, 갑자기 제 신심 떨어지네요.

에이! 나칠게님의 걱정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수준에서 걱정을 계속 하렵니다. 불교는 좋은 업 쌓아서 좋은 결과 보자는 종교 아닙니다. 그리고 업에 의해 신분을 합리화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훌륭한 업 쌓아서 사람이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나도 지금 생애 좋은 업 쌓아서 내생에는 그렇게 높은 신분 되자는 종교도 아닙니다! 불교가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데,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게 제 걱정입니다!

그럼 불교는 무엇이 목적이냐고 물으신다면, 누구나 다 아는 답이 있지요. 불교는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잖아요. 그리고 업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윤회를 벗어나는 중심으로 하는 종교잖아요. 그게 너무 고상한 목표고, 또 현실에 맞지 않아 그렇게 불교를 말하면 현실에 불교 발붙일 곳이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가 그런 종교이기에 현실에 의미가 있고, 또 현실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믿거든요.

애고,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듯하네요 일단 통파! 다음 손오공 필미삼아 쉽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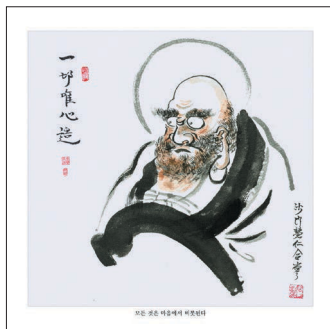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선으로 가는 길 (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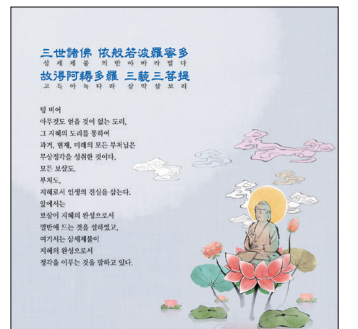
달마도 (대,소)



밝고 향기롭게 (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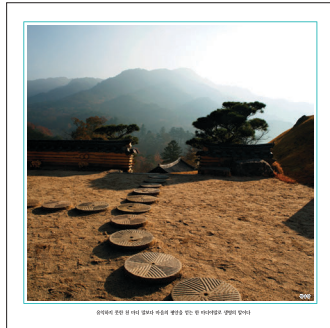
선화의 향기 (대,소)



반야심경 (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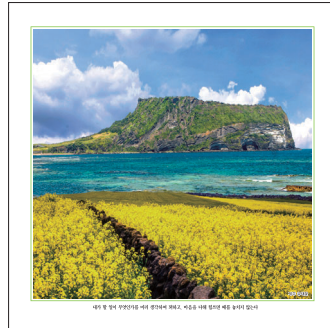
산사의 꽃 아생화 (대,소)



암자에 길을 묻다 (대,소)



부처님의 성지 (대,소)



그리운금수강산 (대,소)



붓다의 향기 (대, 소)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수첩

트윈스프링 차걸이